

## 기후변화의 위기와 기독교 생태교육의 방향 모색

조미영(연세대학교/강사)

shalom0102@hanmail.net

### 한글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의 위기에 있어, 기독교교육이 생태학적 교육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기후변화가 보여주는 것은 불과 2-3도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도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모습은 삶을 변경하지 않는 한에서 기후변화의 위기를 염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기후변화의 의미와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 현대의 산업적, 과학기술적 성장, 그리고 소비지향적 사회구조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 인간 중심주의적 세계관은 모든 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정당화하며, 자연은 인간의 지배대상이나 하나의 도구로 간주해왔다. 또한 인간의 경제활동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고, 이 증가에 따라 생태계 파괴의 위험도 증가한다. 개인의 소비증가와 풍요가 생태계 긴장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서 속의 창조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상생과 공존임을 규명하고, 안식의 원리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성육신의 관점에서 세계를 하나님의 '몸'으로 이해하는 생태교육적 단초들을 발견하였다. 이 단초들을 토대로, 인간과 자연이 배려와 존중의 관계성을 가지는 생태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창조영성의 회복, 청지기로서의 책임과 지구 차원의 연대를 이루어가기 위해 생태적 상상력의 함양을 제시함으로써 기독교 생태교육의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기후변화의 위기에 있어, 기독교의 생태교육적 단초들을 통한 기독교교육적 접근을 통해 지구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책임적 존재로 다시금 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 주제어 》

기후변화, 창조와 안식, 성육신, 창조영성, 생태적 상상력, 기독교 생태교육

## I. 들어가는 말

전 지구적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기는 인류의 주거환경과 지속적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뉴스와 포털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수시로 쏟아지고 있다. 작년 여름에는 역대급 장마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자연재해라고 하기보다는, 인재(人災)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기사를 통해 접하기도 했다. 반면, 올해 여름은 폭염이 전국적으로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열돔(Heat Dome) 현상’이 도무지 가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올해 초 미 항공우주국(NASA)은 1940년대부터 최근까지 동일한 지역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들을 공개했는데, 이는 수십 년에 걸친 지구온난화 그리고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보여주고 있다(송현서, 2021. 1. 8). 뉴질랜드에서 눈에 띄게 줄어든 빙하, 사하라 사막에 내린 눈, 북극 해빙의 달라진 모습 등 지구온난화가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해 달라진 지구 여기저기의 모습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1984년과 2012년의 북극 해빙의 모습을 비교하면, 28년 동안 사라진 해빙의 규모가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는 북극의 해빙이 금세기 내에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했다. 『2050 거주불능 지구』(Wallace-Wells, 2020)에서는 탄소배출을 전 지구 상에서 완전히 제거하기까지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20-30년이라는 비극적인 미래를 예측하기도 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30여 년도 채 남지 않은 2050년의 지구는 더 이상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위기는 단순히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위기는 자연 자체의 문제가 아닌 자연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며, 따라서 인간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이 필요하다. 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기존의 자연에 대한 몰이해와 접근을 반성하며 새로운 관계의 모색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생명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과 자연을 인간의 지배대상이나 하나의 도구로 보는 세계관에서 벗어나 생태적 세계관으로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하나 혹은 한 가족으로 여기는 종교적 전통을 향하여 배우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모습은 삶을 변경하지 않는 한에서 생태환경의 변화를 걱정하고 있다.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통계분석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한국인 대부분이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은 생존의 절박함이 아니라 삶의 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걱정이나 공동체적 세계관에 기초해 있다는 것이다(신익상, 2019). 인간은 물질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보다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충족감보다는 적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생활 태도를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찰과 반성이 생각에만 그치고 구호에만 머물고 있다. 재생 에너지의 사용과 지구가 지속 가능한 생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임을 알고 있지만, 인간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안일함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기독교교육은 반(反) 생태학적이다(윤응진, 2004). 기존의 기독교교육이 전하는 신앙 양태는 무엇보다도 피안의 세계에서 영혼 구원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현실에 대해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누리는 특권과 물질적 풍요를 축복으로 가르치는 교육은 자본주의 체제의 반생태

학적 지향성을 비판하는 의식화 교육이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태학적 교육으로서 기독교교육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교육의 신학적인 토대가 재검토되고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교육의 이 같은 신학적 방향 전환은 기후변화의 위기라는 현 시점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다. 기독교교육이 완전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생태적·경제적·이념적 변화를 촉진하는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학습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글로벌 시민으로서 연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Kim, 2021).

이에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 기독교교육적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서에 나타난 자연관을 살펴보고, 기독교의 자연관에서 생태교육적 단초들을 도출해냄으로써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제시하며, 학습자의 친자연적 사고와 행동을 형성하는 생태적 패러다임으로 제안해보려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의 극복을 위한 기독교교육적 접근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생태 보존에 대한 깊은 책임을 인식하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다르게 살기를 실천하는 기독교 생태교육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II. 기후변화의 위기와 원인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지구의 대기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 활동에 직·간접적 원인이 있고 그에 더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에 자연적인 기후변동이 관측된 것”을 말한다(UNFCCC 제1조). 전 지구의 기후는 산업화 이전 대비 변화했으며 많은 증거들은 이러한 변화가 유기체 및 생태계는 물론 인간계와 그 복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06-2015년의 전 지구 평균 표면 온도(GMST)는 1850-1900년에 비해 0.87℃ 더 높았으

며 이 온도 상승은 영향의 빈도와 규모를 증대시켰고, 산업화 이전 대비 GMST의 1.5°C 또는 2°C로의 상승은 자연계 및 인간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증거를 더욱 강화시킨다. 인간 활동에 기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육지와 해양 온도의 상승, 폭염, 호우의 빈도, 강도 및 강수량의 증가뿐 아니라 지중해 지역의 가뭄 리스크를 증가시켰다는 증거가 상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IPCC, 2019, 35).

1.5°C에서 2°C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에너지, 물 및 식량 부문에 걸친 리스크는 공간적·시간적으로 중복되고, 이는 새로운 위해(危害), 노출, 취약성을 발생시켜 더 많은 인구 및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군소 도서 지역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인구가 위험에 놓여있다고 전망했다.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아프리카 대륙, 동남아시아,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의 저소득, 중간 소득 국가 및 지역에서 가장 큰 둔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IPCC, 2019, 36).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는 사회적 약자와 빈곤계층에 더욱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염려되는 부분은 전 지구 온도 상승이 인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뎅기열과 같은 일부 매개체감염 질병에 대한 리스크가 1.5°C에서 2°C로의 온난화와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는 지리적 범위의 이동도 포함된다(IPCC, 2019, 39). 결국 매개체감염 질병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전망은 질병, 지역, 변화 정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위기는 비단 소수의 나라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지구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양상임을 각종 뉴스와 매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기의 본질은 인류가 지속적으로 생태계에 충격을 가하면서 자연환경을 파괴해왔고, 그 결과 생태계는 더 이상 자체적으로 평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는 산불이나 해일, 지진 등의 자연재해보다 심각하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지역과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사막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대대로 살아

왔던 티전을 떠나 유랑자로 전락하고 있다. 기후난민(climate refugee)은 “대규모 자연 재난, 이상기후, 인위적인 환경 파괴 등 환경을 주된 요인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국적국을 떠난 이들”을 말한다(오재호, 우수민, 허모랑, 2012).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본주의적 위기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질 것이며, 10억 명 이상의 기후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류석호, 2021. 7. 20).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난민 문제는 한 국가 안에서 더 이상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머지않아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국제적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이제 인류의 안보 문제이자 지구의 안보 문제이다(McFague, 2008, 18). 기후변화의 위기는 테러와의 전쟁보다도 전면적이며 영구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한 원인으로는 먼저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을 들 수 있다. 인간중심주의는 생태계와의 관련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오로지 인간의 이익, 행복을 도덕적으로만 고려할 뿐이며, 다른 종(種)이나 개체에 대해서는 전혀 도덕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입장이다. 다른 종이나 개체에 대해 고려한다 해도, 그것은 종이나 개체가 인간의 행복과 이익을 위한 도구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볼 때,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한 자연관이 서구 사회에서는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해왔다. 즉, 인간만이 자연을 초월하는 도덕적 주체이며, 인간의 이익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의무를 결정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직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조석영, 2005). 이러한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은 인간의 영역에 대한 무한한 확장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의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정당화하였다. 그로 인해, 자연과 나 아닌 타인의 상호주관적 세계는 무시되었고 나 이외의 대상 세계에 대해서는 비인격적인 실체로 파악하게 되었다(노상우, 2003). 무엇보다도 자연은 인간의 삶과 행위로부터 분리되어 인간의 지배대상으로 탈가치화되고, 결국 자연은 역학의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단순한 기계로 간주되었다(조영준, 2012). 자연을 길들이는 과학의 능

력에 대한 낙관주의적 태도가 우세했으며, 환경 파괴의 위험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Abraham, 1997).

기후변화의 위기는 또한 현대의 산업적·과학기술적 성장과 소비지향적인 삶의 방식 때문에 야기되었다. 산업 혁명의 결과로 등장한 산업 사회는 농경 사회와 달리 기계화나 분업화로 인해 인간의 물질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생산성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대량 생산과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태계에서 분해 불가능한 대량의 폐기물이 생겨났고, 이는 오늘날 생태 위기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상품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서 광고를 통해 끊임없이 소비 욕구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현대 소비자본주의는 개인인 ‘자신’에게만 끊임없이 집중하도록 하며 대상이 구체화 되지 않은 욕망을 부추기므로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도록 하고 있다(김은주, 2020).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태적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경제 개발과 무절제한 소비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인간의 과잉 욕구를 조장하며 이를 위한 경제, 정치, 사회 체제가 가동되어 자원의 고갈과 생태계의 파괴가 극심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김수미, 2014).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승자 독식의 구조와 물질적 축복이 최고의 복과 가치가 된 지금, 공동체의 연대보다 당장 나와 내 집단의 안위와 이기적 기대가 시급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난민, 장애인,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 등 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발 빠르게 편승하지 못한 이들이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노출되어 있다.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의 전 지구적 기후 재앙은 인류 문명을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기후변화는 바로 인간의 이기와 탐욕으로 빚어낸 자본주의 경제 체제, 그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삶에서 기인한다(이정배 외, 2019, 177). 우리는 기후변화의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폭력적 착취자이며 가해자이기도 하다.

오늘날 인류에게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기는 기존 제도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 할 정도로 복합적이며 급박하게 대두하고 있다. 이 위기는 단지 자원 고갈이나 환경오염 등 협소한 환경 파괴의 문제 또는 외부로부터의 구속이나 억압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과도한 물질주의가 불러온 인간의 내부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김수미, 2014).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반(反)생태주의적 사고와 세계관으로부터 오늘날 기후변화의 문제가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의 그릇된 사고와 세계관의 근본적인 전환이 있을 때에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당면한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지녀왔던 반생태주의적 사고와 가치관으로부터 상생적이고 생태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은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자연적 존재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실천행위를 통하여 자연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연을 넘어 자립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기도 하다(조영준, 2012). 웰즈(Wallace-Wells, 2020, 331)는 지구온난화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동일한 위기에서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고 또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동시에 배울 수 있으며, 이제 그 힘으로 동일한 시간 내에 손상을 멈춰야 함을 역설하였다. 자연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태도로부터 자연과의 공생을 통해 협력과 비폭력적인 태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 본래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야 할 관계적 존재이면서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야 할 책임을 지닌 책임적 존재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 기후변화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 생태교육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Ⅲ. 성서에서 발견하는 생태교육적 단초

#### 1. 창조를 통해 본 인간과 자연의 관계: 상생과 공존

성서는 하나님에 의해 모든 생태계가 창조되고 인간과 마찬가지로 복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존중할 것을 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필요한 만물과 인간을 만드시는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피조물을 보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다(창 1:3-31). 우리의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완전하심을 인간에게 알게 함으로써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는 신앙심을 갖게 해준다(이인화, 2009).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보다 먼저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다(창 1:22, 8:17).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인간과 마찬가지로 모든 생태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받았다. 성서는 또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선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딤후 4:3-5, 레 25:23). 이처럼 성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생태계의 주권자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존재로 인간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기록한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물들을 친히 이끌어 와서 그에게 이름을 짓게 하신다(창 2:19).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름을 짓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름은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짓는 것이며, 이름을 짓는 주체와 대상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다. 이름을 짓기 전이라도 상대가 존재했지만, 이름을 짓는 주체가 그 이름을 짓고 불러주기 전까지 상대는 이름을 짓는 자와 무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권수영 외, 2019, 218). 따라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존재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 각각에 대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에 대해서 사랑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관계의 약속이다. 이것은 지배나 소유의 관계가 아닌 '나'와 '너'의 공존과 상생의 관계를 말한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인간은 창조 세계를 긍정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를 맺음으로써 창조 세계에 전적으로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 삶의 터전이 마련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 이전에 환경적 존재로 시작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창조 세계와 전적으로 소통하며 관계를 맺는 삶을 영위할 것을 요청받는다(이정배 외, 2019, 171).

성서는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임을 기술하며, 인간과 자연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에덴동산의 모습이나 홍수 이후 하나님과 노아와의 계약에 대해 보면 지구가 인간과 동물의 공동 거주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 여부가 하나님의 창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순종하면 인간뿐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도 함께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인간뿐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신 28:2-19). 그러나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았고(창 3:17) 가시와 엉겅퀴를 토해냈다. 인간의 죄악은 땅에 거하는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해지고 고기도 사라지는 재앙을 초래하였다(호 4:1-3). '메뚜기 떼의 습격'이라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자연재해와 땅의 황폐함을 통해 인간의 죄악을 지적한다(을 1:1-20). 이처럼 성서는 지구의 건강에 인간의 행위가 영향을 미친다고 증언한다(김희권, 2019).

이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통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규정해볼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창조 속에서 자연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기고 귀하게 여겨 다스리고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성서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땅의 황폐함과 자연재해를 통해 인간의 죄악을 심판했다. 이에 대해 성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손상되어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성서는 인간이 하나님

로부터 자연에 대한 오용과 착취를 허락받은 게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 대해 사랑을 가지고 잘 보살피면서 함께 공생하도록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이인화, 2009). 이는 기독교의 자연관이 중요한 생태교육적 함의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생태 보존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갖는 것과 생태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 2. 안식의 원리: 인간과 자연의 회복

안식은 그저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창조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안식의 원리는 쉼과 창조 질서예의 환원이다. 인간은 안식을 통하여 인간생존의 필요한 것들이 인간 일의 결과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겸손히 서게 되고, 타자와 자연과 더불어 삶의 양식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무질서한 개발이나 산업화, 도시화는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식량, 물 등 많은 문제를 배태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가 동등하다는 것, 숲도 일정 기간 휴식을 주면 복원되는 것처럼 인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송오식, 2020).

하나님께서서는 천지와 만물을 엿새 만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 또한 사람들에게도 “엿새 동안에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고 하셨다(출 23:12). 안식일에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휴식하도록 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함으로써 안식을 통해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파괴된 육체와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음을 볼 수 있다(창 2:2-3, 출 23:11-12). 헤셀(Heschel, 2007, 13-17)에 따르면, 안식일은 현대사회의 지칠만큼 몰아세우는 삶에 대한 대안이 되며, 문명을 뛰어넘는 기술의 날이자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날이다. 따라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자 모든 피조물을 위한 날이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창조 때 부과된 자신의 본래성을 회복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안식년은 또한 인간의 삶을 위해 경작 당한 땅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묵혀두었던 땅에서 수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긴 소산으로 품꾼과 객, 남종과 여종, 가난한 자와 들짐승, 육축들도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였다. 성서는 안식일과 안식년 제도를 통해 착취당하고 파괴된 자연,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의 상처를 사랑으로 보듬어 치유할 수 있는 처방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이인화, 2009). 이처럼 매주의 안식일과 정기적인 안식년은 인간에게 있어 그리고 인간에 의해 길들여지고 인간과 같이 생존하는 동물에게 있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구의 안식(레위기 25-26장)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지구는 일곱 번째 해에 지구의 새로운 회복을 위해 휴경(휴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지구의 권리이다. 인간이 '지구의 안식'을 지키다면 평화 속에서 살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무시한다면 인간은 지구의 번식력을 파괴했기에 가뭄과 기근으로 고생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회복을 위한 생물권과 지구의 권리는 오늘날 대부분 간과되고 있다. 살충제와 화학비료는 자연의 질서와는 역행되는 산출의 상태로 지구를 만들고 있고, 그 결과, 지구는 피할 수 없는 기근과 회복될 수 없는 부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Moltmann, 2006). 지구의 권리를 간과하고 무시하는 모든 행위는 앞으로 다가올 다음 세대를 위협하고 인류의 생존마저 파괴하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성서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히 지켜 모든 인간과 동식물과 땅이 휴식을 취함으로써 개발과 경작으로 인한 생태 위기를 치유할 것을 명한다. 안식의 본래적인 의미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통해 창조주를 기억하고,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하며 태초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 3. 성육신의 관점: 하나님의 ‘몸’인 세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 1:14). 하나님이 물질세계에 들어오시고, 유한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본성과 구속받은 인간의 성품을 드러내심으로써 총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조건 속으로 들어왔다. 신앙의 이러한 관계성의 신비는 성육신에 대한 특정한 해석에 구애됨이 없이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함축성을 갖는다(Nash, 1997, 166).

맥페이그(McFague, 2008, 95-96)에 따르면, 그동안 전통적인 창조와 섭리의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내재성보다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더욱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이 성육신해 계신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해석할 때, 창조와 섭리의 문제를 새롭게 다시 생각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외적인 관계처럼 생각하기보다는, 이 세계가 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혹은 이 세계를 하나님의 “몸”으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창조와 섭리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하나님의 몸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몸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가까이 있는 것, 이웃, 그리고 지구에 주목하며, 하나님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의 만남에 주의를 기울인다. 우리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병든 이들을 치유하고 굶주린 이들을 먹이며 온실가스를 줄이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가 건강하도록 사랑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위기는 중요한 종교적 문제이며 기독교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다.

성육신은 인류만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관계 가운데서 인류와 결합되어 있는 하늘과 땅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물에게 존엄성을 부여한다(Nash, 1997, 168). 그것은 하나님의 구도 속에서 모든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소중한 것이 되게 함으로 생명-물리적인 세계를 성스러운 것이 되게 한다. 그것은 모든 생명이 가지는 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호의, 연대의식, 그리고 생명 사랑을 정당화한다. 또한 성육신은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연결되어 있으며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킴으로 인간의 겸비를 확인시켜 준다. 이런 관계성을 인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본성을 드러내고 배타적인 오만성을 꺾어 놓음으로써 인간의 품위를 강화한다(Nash, 1997, 169). 그리고 성육신은 다른 피조물이 도덕적인 가치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피조물의 지위를 높여주기도 한다.

이처럼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이 세계 안에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성육신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성육신의 맥락에서 이해할 때,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McFague, 2008, 95-96). 다시 말해서, 그런 이해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장소에 있으며 우리도 세계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몸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는 대단히 흉악한 죄가 되고, 그 어떤 도덕적인 잘못보다도 더욱 악한 죄가 된다(McFague, 2008, 247). 성육신의 종교인 기독교는 타인들의 몸, 육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배려를 요구한다. 타인들의 물질적 필요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 자신의 물질적 행복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다르게 보는 것을 방해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IV. 기독교 생태교육의 방향 모색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진행한 '2019년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 조사' 중 신앙관과 생태 위기에 관한 설문조사의 1차 통

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결과 중 두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 대부분이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은 생존의 절박함이 아니라 삶의 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걱정이나 공동체적 세계관에 기초해 있다. 둘째, 적지 않은 개신교인들이 교회가 환경과 관련한 시민단체를 단지 지원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환경운동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신익상(2019)은 생태 위기에 대해 현재 삶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생태환경의 변화를 걱정한다고 진단한다. 이 결과를 분석해보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환경과 기후에 관한 한국인의 우려는 지금과 같은 삶의 환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지금의 삶을 심대하게 변경해서라도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기초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겠다는 실천 의지(개신교인 90.7%, 비개신교인 87.2%)는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나, 실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지(개신교인 57.5%, 비개신교인 50.0%)는 훨씬 덜했다. 이러한 사실은 환경과 기후에 대한 위기의식이 급진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증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만이 아닌 전 피조물에 해당된다. 즉, 인간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피조물에게 이 구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희망도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유효하다(이인화, 2009). 이처럼 “구원”이 단순히 선택된 사람들이 다른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의 행복을 뜻하는 것이라면, 기후변화의 위기는 신학적 문제가 된다(McFague, 2008, 91-94). 기후변화의 위기는 우리가 눈을 돌려 세계를 보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장소를 보도록 요구하며, 이 지구의 한계성과 특수성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 1. 생태적 패러다임: 배려와 존중의 관계성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즉 '생태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여기서 생태적 세계관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행동에 일정한 방향을 부여하는 것으로, 경제적 성장과 과학기술의 발전, 풍요로운 소비사회를 지향하는 현재의 세계관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관이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 정신적 가치의 존중, 물질적 욕구의 절제를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대안이 되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중심주의에서 자연중심주의으로의 시각 전환을 의미하는 생태적 세계관은 기계적·수학적 이성애 앞서 예술적·미술적 이성을 좀 더 근본적인 것으로 보고, 쾌락적 경험이나 물질적 소유보다는 의미 구성과 내면적 체험을 강조한다(박이문, 1998, 96-104). 또한 생태적 세계관 안에서는 자기중심적 배타성이 사라지게 되고 공동체 중심적인 협동이 살아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행위의 주체인 우리가 인간, 사회, 자연을 바라보는 생태적 세계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장 심층적인 수준에서 의식과 행위 지향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조용개, 2001).

인간은 지구생태계와의 관계 맺음에 있어 다양한 자아 규정과 행동 양식의 규정을 통해서 접근해볼 수 있다. 머천트(Merchant, 2005, 66-67)는 자기중심적 윤리, 인간 중심적 윤리, 생태 중심적 윤리, 생태공동체적 윤리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그중에서 머천트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생태윤리는 생태공동체적 윤리인데, 다문화적 환경윤리 그리고 동반자 윤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의 제안은 동반자 윤리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관계 속에서 인간, 사회, 그리고 우주를 바라본다. 이에 대한 다섯 가지 명제는 “인간과 비인간 공동체 간의 형평성, 생물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 존중, 인간 및 다른 종 모두에 대한 도덕적 고려, 여성과 소수자 및 자연을 윤리적 책임 규정에 포함, 인간과 비인간 공동체의 지속적인 변형과 조화되는 생태적 관리”이다(Merchant, 2005, 84). 인간과 비인간 공동체의 지속가



능한 관계, 그리고 번영을 머천트는 중요한 과제로 삼는데, 이 관계는 종속과 지배와는 질적으로 다른 배려와 존중이다. 타자로서의 인간과 자연을 배려와 존중으로 대하며 생태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곽호철, 2019). 생명 존속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지배와 조작'의 가치가 아닌, '돌봄과 나눔'의 가치이다. 지배와 착취의 모형은 인간과 자연 모두의 생태학적인 죽음을 낳을 뿐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인간 상호 간의, 그리고 자연과 인간 간의 본질적 연관을 확증한다. 소비주의가 아니라 보전, 탐욕이 아니라 필요,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가능하게 하는(enabling) 힘, 자연의 착취가 아니라 피조 세계의 원상 보전이라는 생태학적 가치들을 양육하는 구조들을 건설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Abraham, 1997).

위기 속에 처한 창조 세계를 다시금 새롭게 살리기 위한 교육은 창조 질서 회복의 통전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창조 질서 회복의 통전성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피조물로서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성서적 가르침에 기초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생태계의 회복에 대한 이해를 인간이 자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신학적·성서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은 피조 세계의 일부로 자연의 법칙 아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펼쳐 나가시는 오묘하고 신비로운 창조의 드라마에 자연의 다른 여러 종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이다. 인간과 자연은 모두 전 지구적인 생명의 과정에 동참하는 존재들인 것이다.

생태교육의 과제는 교육대상의 범주를 자연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장(場) 또는 구조를 포착하는 일이며, 이 장에서 생성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자연과 인간의 상생하는 정신으로 구현하는 일이다. 이 정신의 배양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일체감이 형성될 수 있으며,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사고와 행위가 변화되어 학습자에게 친환경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위한 생명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노상우, 2003). 따라서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한 인간의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인류가 생존의 차원을 넘어 자연과의 상생을 추구하는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간의 가치관과 태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의 위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연에 관한 기사나 자료들을 찾아봄으로써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인식하도록 하며, 이에 성서에서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설명하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생태적 세계관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 배려와 존중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기독교교육을 통해 생태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 2. 창조영성의 회복

폭스(Fox, 2001, 95-96; 326-327)는 만유내재신론과 우주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재정립하는 길을 보여주며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실천과 이론을 제시하였다. 먼저 예수의 탄생은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우주적 사건이 되고, 예수는 새 창조계의 예언자뿐만이 아니라 새 창조 자체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 창조이신 예수는 자신과 서로와 창조계와의 화해로 만인을 부르신다. 창조계의 아름다움과 우주적 깊이를 경험하는 긍정의 길, 어둠과 고통, 비움을 받아들이는 부정의 길, 창조성과 인간의 신성을 벗 삼는 창조의 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상호의존되어 있다는 우주의 원리와 치유에 관심을 갖는 변형의 길로 묘사되는 창조영성의 네 가지 여정을 통해 빛과 어둠, 기쁨과 고통, 풍부함과 빈곤함 속에서도 평온하게 존재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창조영성에 근거한 생태신학은 우주 만물의 상호 연관성, 우주에 대한 경외심,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정향되어 있다. 이러한 창조영성은 예수 자신이 살았던 영성 전통을 회복하며 복음과 종교를 새롭게 태어나게 함으로 종교를 종교 자체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창조영성은 안식일을 지향하는 영성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해석하면서 인간 창조를 창조의 완성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최근 성서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그 완성은 인간이 아닌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시켜 주었다.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안식, 즉 살롬이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살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살롬, 인간과 자연 사이의 살롬 관계가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이다(장신근, 2008). 따라서 창조영성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 착취나 지배가 아닌 살롬을 지향하는 영성인 것이다.

교회의 전통에서, 사람은 목상을 통하여 자신의 우주적 존재를 깨닫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우주적 힘을 흡수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개신교 전통에서, 갱신의 근원으로서의 우주적 목상의 전통에 대해 소홀히 다루어 왔다. 예를 들어, 많은 기독교인에게 성찬식의 의미는 그저 의식을 준수하는 정도에 제한되어 있으며, 따라서 성찬식은 이 세계에 적극적인 참여의 방식으로 파악되지 못한다. 부수어진 빵이 나눔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은 무척 드물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찬식의 역동적인 성격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사람들이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에 대하여 개방적이 되도록 자극과 격려를 준다(Abraham, 1997). 이러한 성례전적 모델이 창조영성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창조영성의 회복을 위한 교육은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창조영성은 땅을 파괴하지 않고 땅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킨다. 또한 인간의 우뇌를 발달시키는 심미적 교육을 통해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고, 치유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내면의 명상만을 중요하게 여기던 차원에서 예술 명상과 같은 외면의 명상에 관심을 갖는 것이며, 자신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개인적 수양을 넘어서서 불의를 정의로 삼는 프락시스적인 삶으로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조은하, 2007). 자연과의 사귄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는 실천들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창조과정에 나타나는 신비함과 일상의 먹거리가 지닌 성례전적 의미 등을 인식하는 가운데 창조영성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 또한 창조신앙에 기초하여 자연의 심미적 차원을 감상하기, 자연을 주제로 문학·예술작품 창작하기, 자연을 주제로 한 전시회 참여 및 개최하기 등은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켜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 3. 생태적 상상력: 청지기로서의 책임과 연대

인간이 기후변화의 문제에서 중요 요인이지만, 해결과 극복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북친(Bookchin, 2002, 400)은 인간만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능동적인 행위자로 살아가며, 세상을 그저 받아들이기보다는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자기 개선적인 존재라고 했다. 현재 기후변화의 위기에서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반 다이크(Van Dyke, 1999, 33)는 인간의 타락된 본성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인식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하는데 쏟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이 피조물인 동시에 청지기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라이트(Wright, 1995, 171) 역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며, 청지기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조물인 자연에 대한 지식의 확보 더불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피조물을 이해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보된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행동해야 함을 말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세계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므로 전체의 생명 즉, 지구 전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생태적, 유기적 세계관으로 유도되는 현대에서, 모든 사물과 현상은 이제 무수히 분리된 요소로 구성된 기계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며 분할 할 수 없는 전체로 파악한다(노상우, 2003). 그것은 역동적인 관계의 그물로, 그 그물 안에는 관찰하는 인간의 의식도 근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모든 존재를 전일적인(holistic) 시스템으로 인식할 때, 세계의 모든 존재자는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연대성(Solidarity)은 인간이 상호의존하고 있다는 변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도덕적인 응답이다. 오늘날 연대성은 지구와 환경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Nash, 1997, 95). 조력에 대한 고전적인 도덕 원칙은 사회생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위의 공동체에 의한 사회적인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재 겪고 있는 위기의 우주적인 차원을 생각해 볼 때, 그 위기에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사회적 단위는 세계 공동체이다. 지구온난화, 오존 감소, 체르노빌 사건에서 판명되었듯이 세계보다 더 낮은 단위에서는 그 문제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도 없고 제대로 해결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구 전체의 문제로 곧바로 확장되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지구 차원의 연대성은 생태계의 위기에 대하여 지구 차원의 응답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구체화 되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위기 가운데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지구 차원의 연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른 세계를 상상하고 간구하는 일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먼저 상상력이란 단순한 모방을 뛰어넘어서 무엇인가를 새로운 방식으로 창조하는 능력, 즉 현재의 즉각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가능성을 보고 기술하는 능력이다(Casey, 1976, 67). 듀이(Dewey, 2003, 139)에 의하면, 상상력은 이상(ideal)과 현실(real) 간의 긴장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데, 현실에 대한 인정과 부정이라는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며 탐구와 발견을 통해 경험을 재구성하고 확산해가는 활동이다. 밀즈(Mills, 1959, 7)는 상상력을 함양으로써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

다고 하였다. 미래학자인 보울딩은 미래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 미래와 직접적 관계가 있음을 시사했는데, 현재 존재하는 것과 다르고 더 나은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 변화의 가능성에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Jenkins, 2013).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상상함으로써,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걸음을 뚝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역사적 이야기만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의 성스러운 신화적 이야기와 은유적으로 표현된 상징적인 담화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성서가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예수는 많은 비유와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논리적인 방식보다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가르치셨다. 그것은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상력을 자극하고 초대하시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조미영, 2020). 예수의 비유들은 인습적인 생각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 상황을 뒤집어 보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생활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이야기들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큰 잔치의 비유, 탕자의 비유, 부자의 비유 등에서 사람들이 인습적으로 의롭고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뒤집어 엎어진다. 그들이 알고 있던 인습적인 세계가 비유를 통해 날카롭게 비판을 받게 되고, 세계 안에서 다르게 존재하는 방식이 제시된다(McFague, 2008, 241). 즉, 사마리아인, 둘째 아들 탕자, 가난한 사람들, 변두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게 된다. 비유들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한 대재앙의 가능성에 직면해있다. 이것은 다른 세계에 대한 꿈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수는 비록 그가 살던 세계 역시 매우 끔찍했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으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으며, 그 나라는 이사야의 표현처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나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이 없는” 세계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도래할 나라이다(McFague, 2008, 242-243). “다르게 보기” 위해서,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하고 상상해야

만 한다. 이것이 다르게 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 사람들은 상상의 작용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되고, 그러한 가능성의 실현을 위해 실천의 용기를 가지게 된다. 즉, 가능성이란 아직 가공되지 않은 원료와 같은 것으로, 이로부터 내가 더 선호하는 미래가 설계되고 평화를 이루며 희망이 고무될 수 있다(조미영, 2020).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기 위한 생태적 상상력을 기르는 교육을 통해, 미래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며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을 돌보고 가꾸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자연의 청지기라는 사명을 기억하며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자연 파괴적 삶의 양식을 바꿔나가는 실천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의식적·무의식적 차원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소비를 절제하고 일회용품을 포함한 쓰레기를 감소시키는 것, 생명의 근원인 수자원을 절약하는 것, 걷기를 장려하거나 대중교통 또는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는 것,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서로 바꾸어 쓰고, 재활용을 장려하는 것 등의 실천들은 생태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사순절이나 종교개혁 기념 절기에 자발적인 금식 혹은 소식(小食)을 유도함으로써 식량자원의 분배 그리고 나눔의 녹색 영성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김회권, 2019). 최대한 줄이면서 가볍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줄인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나누며 사는 것이 생태계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의식을 일깨우며, 생태적 상상력을 통해 더욱 큰 행동으로 확장되어 다른 세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V. 나가는 말

기후변화의 위기는 자연이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라, 자연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이 고통을 줄이고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면서 발생하게 된 문제이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면서 생겨나게 된 현상인 것이다. 인간은 산업화로 인해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이를 위한 무분별한 자연 개발은 자연의 훼손과 파괴를 가져왔다. 결국 경제적 성장과 진보라는 환상의 추구는 환경오염과 생태 위기라는 재앙을 초래하는 행위였음을 보여주었다.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은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환경 재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해왔다. 그러나 인간중심주의의 패러다임 속에서 인간과 자연은 동시에 고유한 가치를 상실한 채 수단과 부품으로 전락해 버렸고, 자연은 무엇보다 도구적 대상으로 간주되어 무차별하게 착취당하며 본래적 모습을 상실하였다.

기후변화의 위기에 있어, 기독교교육은 현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 체제와 세계시장 단일화 체제에 대한 창조적인 거리를 유지할 때에 시작될 수 있다. 그 창조적인 거리 유지를 통해 구약의 창조신앙과 신약의 만물 갱신을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비전을 붙드는 것이다. 자연이 착취당하고 파괴되었을 때 성서는 안식을 통해 회복시킬 것을 명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새로운 세상 즉,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성서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생태주의적 세상임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성육신의 종교인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곳에, 이 지구 위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다. 즉, 하나님의 '몸'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구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모든 생명들과 함께하시는 내재적 영성을 강조하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깊이 고려해볼 수 있다.

기후변화의 문제가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포기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가속화될 뿐이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구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기존의 자연에 대한 몰이해와 태도를 반성하고 새로운 관계 모색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다. 자연을 하나의 도구로 보는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에서 배려와 존중의 관계를 형성하는 생태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태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인간은 자연과 인간을 전체적 관계 속에서 조망하고 상호 공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의 생태적 관계망 안에서 인간이 같이 호흡하고 때로는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역동성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창조영성과 생태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한 기독교교육은 학습자의 시야가 전환되고 확장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시야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이웃과 공동체에서부터 세계로, 현재에서 다음 세대로까지 확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생태계를 인간의 이익과 관리를 위해 조작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가 자체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일임을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교육은 학습자에게 지구생태계가 인류 전체, 즉 현존하는 인간만이 아닌 미래 세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임을, 인류의 유일한 공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지구적인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발견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구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태계를 위한 교육에서 더 나아가 생태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돕는 교육이 이루어질 때에, 겸허하게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비움의 화신이었던 그리스도처럼 인간의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비움으로써 지구환경의 보존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멈추고 작은 불편함들을 감수해가면서 자연과 더불어 상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책임적인 존재로 다시 서게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곽호철 (2019).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나타난 기후위기와 기독교윤리적 대응. **대학과 선교**, 42, 171-203.
- [Kwak, H. C. (2019). Climate crisis in the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 and a christian ethical response.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42, 171-203.]
- 권수영·김선정·김학철·김현숙·민경식·방연상 ... 홍국평 (편) (2019). **기독교, 묻고 답하다**. 서울: 청송미디어.
- [Kwon, S. Y., Kim, S. J., Kim, H. C., Kim, H. S., Min, K. S., Bang, Y. S., ... Hong, K. P.(ed.) (2019). *Christianity, question & response*. Seoul: Chungsong Media.]
- 김수미 (2014). 생태학적 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윤리교육의 방향. **현대교육연구**, 26, 113-144.
- [Kim, S. M. (2014).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 for overcoming the ecological crisis. *Korean Journal of Contemporary Education*, 26, 113-144.]
- 김은주 (2020). 생태학적 기독교 영성을 통한 기독교교육의 방향과 실천적 제언. **기독교교육논총**, 63, 347-376.
- [Kim, E. J. (2020). Direction and practical proposal for christian education through ecological christian spiritual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347-376.]
- 김회권 (2019). 기독교 교육의 긴급한 의제로서의 창조질서 보전. **신학과 실천**, 63, 541-575.
- [Kim, H. K. (2019). The integrity of creation as an urgent agenda for christian education. *Theology and Praxis*, 63, 541-575.]
- 노상우 (2003). 생태적 담론의 교육학적 함의. **교육학연구**, 41, 1-21.
- [Ro. S. W. (2003). Pedagogical implications of ecological discours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1, 1-21.]

류석호 (2021. 7. 20).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몸살". **투데이코리아뉴스**,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397>, 추출일 : 2021. 9. 23.

[Ryu, S. H. (2021. 7. 20). "World's body ache due to abnormal climate caused by warming". *Todaykoreanews*.]

박이문 (1998).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서울: 당대.

[Park, Y. M. (1998). *The future of civilization and ecological worldview*. Seoul: Dangdae.]

송오식 (2020).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 **종교문화학보**, 17, 87-108.

[Song, O. S. (2020). Desirable policies and systems in the climate crisis era. *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 17, 87-108.]

송현서 (2021. 1. 8). 기후변화로 변해버린 지구.. 그 많던 빙하는 다 어디로?.

**서울신문**,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08601012&wlog\\_tag3=naver](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08601012&wlog_tag3=naver), 추출일 : 2021. 8. 4.

[Song, H. S. (2021. 1. 8). The Earth has changed due to climate change... Where have all the glaciers gone?. *Seoulnews*.]

신익상 (2019). 개신교인의 신앙관과 생태 위기에 관한 인식. **기독교사상**, 731, 8-25.

[Shin, I. S. (2019). The recognition of protestants' view of faith and ecological crisis. *Christian Thought*, 731, 8-25.]

오재호·우수민·허모람 (2012). 기후위기. **한국위기관리논집**, 8, 201-214.

[Oh, J. H., Woo, S. M., & Her, M. R. (2012). *Crisisonomy*, 8, 201-204.]

윤응진 (2004). 생태학적 기독교교육을 위한 방향 모색.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1, 477-501.

[Yun, E. J. (2004).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ecological christian educa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31, 477-501.]

이인화 (2009). 성서에 나타난 자연관의 생태교육적 함의. **교육의 이론과 실천**, 14,

107-122.

[Lee, I. H. (2009). Eco-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view of nature revealed in the bible.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14*, 107-122.]

이정배·김혜령·정동현·신익상·송진순·이성호·이은경 (편) (2019). **기후위기, 한국교회에 묻는다**. 서울: 동연.

[Lee, J. B., Kim, H. R., Jung, D. H., Shin, I. S., Song, J. S., Lee, S. H., & Lee, E. K. (ed.) (2019). *Climate crisis, Ask the Korean church*. Seoul: Dongyeon.]

장신근 (2008). 지구생태계의 위기와 교회의 생명교육목회. **교육교회, 371**, 22-29.

[Jang, S. G. (2008). The crisis of the earth ecosystem and the life education ministry of the church. *Educational Church, 371*, 22-29.]

조미영 (2020). 평화역량을 강화하는 기독교 평화교육, **기독교교육논총, 63**, 377-406.

[Cho, M. Y. (2020). Christian peace education to strengthen peace capabilitie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377-406.]

조석영 (2005). 환경윤리교육의 통합적 접근. **도덕윤리과교육연구, 21**, 335-358.

[Cho, S. Y. (2005). An integrative approach for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 *Journal of Moral & Ethics Education, 21*, 335-358.]

조영준 (2012). 인간과 자연의 통일, 그리고 생태학적 상상력. **시대와 철학, 23**, 209-236.

[Cho, Y. J. (2012). The unification of human and nature, and ecological imagination. *Epoch and Philosophy, 23*, 209-236.]

조용개 (2001). 생태학적 위기와 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주의적 환경윤리교육의 과제와 방향. **윤리연구, 47**, 121-139.

[Cho, Y. G. (2001). A study on the task and direction in ecological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 for overcoming the ecological and educational crisis. *Journal of Korean Ethics Studies, 47*, 121-139.]

조은하 (2007). 생태적 삶을 위한 기독교교육: 매튜 파스(M. Fox)의 창조영성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15**, 171-206.

[Cho, E. H. (2007). Christian education for ecological life : Focused on Mathew

- Fox's creation spirituality.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15, 171-206.]
- Abraham, K. C. (1997). 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신학적 응답. *기독교사상*, 41, 216-234.
- [Abraham, K. C. (1997). A theological response to the ecological crisis. *Christian Thought*, 41, 216-234.]
- Bookchin, M. (2002). **휴머니즘의 옹호**. 구승회 역. 서울: 민음사. (원저 1995 출판)
- [Bookchin, M. (2002). *Re-enchanting humanity* (S. H. Koo, Trans.). Seoul: Minumsa.(original work published 1995).]
- Casey, E. S. (1976). *Imagining: a phenomenological study*.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Dewey, J. (2003). **경험으로서의 예술**. 이재언 역. 서울: 책세상.
- [Dewey, J. (2003). *Art as experience*. Translator: Lee, J. E. New York: Capricorn Books.]
- Fox, M. (2001). **원복**. 황종렬 역. 칠곡군: 분도출판사. (원저 1983 출판)
- [Fox, M. (2001). *Original blessing*. Translator: Hwang, J. R. Chilgok: Bundobook.(original work published 1983).]
- Heschel, A. J. (2007). **안식**. 김순현 역. 서울 : 복있는 사람. (원저 1995 출판)
- [Heschel, A. J. (2007). *(The) sabbath*. Translator: Kim, S. H. Seoul: The Blessed People.(original work published 1995).]
- IPCC (2019. 5. 28).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 TS(기술요약서). 기상청 역. 기후변화홍보포털, [https://www.gihoo.or.kr/portal/kr/community/data\\_view.do](https://www.gihoo.or.kr/portal/kr/community/data_view.do), 추출일: 2021. 8. 1.
- [IPCC (2019. 5. 28). *Global Warming 1.5°C Special Report TS*. Translator: Meteorological Agency. Climate Change Promotion Portal.]
- Jenkins, T. (2013). "The transformative imperative: the National Peace Academy as an emergent framework for comprehensive peace education." *Journal of Peace Education* 10(2), 172-196.

- Kim, H. S. (2021). Beyond doubt and uncertainty: religious education for a post-covid-19 world. *Religious Education 116*, 1-12.
- McFague, S. (2008). **기후변화와 신학의 재구성**. 김준우 역.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원. (원서 2008 출판)
- [McFague, S. (2008). *A new climate for theology* (J. W. Kim, Trans.). Goyang: Korean Institute of the Christian Studies.(original work published 2008).]
- Merchant, C. (2005). *Radical ecology*. 2nd ed. New York: Routledge.
- Mills, C. W. (1959).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oltmann, J. (2006). 인권, 인류의 권리 그리고 지구의 권리. **기독교교육정보**, 13, 313-337.
- [Moltmann, J. (2006). Human rights, human rights, and earth rights. Translator: Kim, H. S.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13, 313-337.]
- Nash, J. A. (1997). **기독교 생태윤리: 생태계 보전과 기독교의 책임**. 이문균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Nash, J. A. (1997). *Loving nature: ecological integrity and Christian responsibility*. Translator: Lee, M. K. Seoul: Pckbook.]
- Van Dyke, F. (1999). **환경문제와 성경적 원리**. 유정철 역. 서울: IVP. (원저 1993 출판)
- [Van Dyke, F. (1999). *Redeeming creation: the Biblical basic for environmental stewardship* (J. C. Yoo, Trans.). Seoul: IVP.(original work published 1999).]
- Wallace-Wells, D. (2020). **2050 거주불능 지구**. 김재경 역. 서울: 추수밭. (원저 2019 출판)
- [Wallace-Wells, D. (2020). *The uninhabitable earth* (J. K. Kim, Trans.). Seoul: harvest field.(original work published 2019).]
- Wright, R. T. (1995). **신앙의 눈으로 본 생물학**. 권오식 역. 서울: IVP. (원저 1989

출판)

[Wright, R. T. (1995). *Biology through the eyes of faith*. (O. S. Kwon, Trans/).  
Seoul: IVP.(original work published 1989).]

---

Abstract

---

## The Crisis of Climate Change and the Direction of Christian Ecological Education

Miyoung Cho

Lecturer,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that Christian education should take as an ecological education in the crisis of climate change. What climate change shows is that it is impossible to survive even if the Earth's temperature rises by only 2-3 degrees. However, our current appearance is concerned about the crisis of climate change as long as we do not change our lives. First, the meaning of climate change and its causes were examined. The anthropocentric worldview, modern industria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growth, and consumption-oriented social structure can be cited as the causes. An anthropocentric worldview justifies everything from the human point of view, and nature is the subject of human domination, but one regarded as a tool. In addition, as the scale of human economic activity increases, energy consumption increases, and the threat of ecosystem destruction increases with the increase in energy consumption. Individual affluence and increased consumption are exacerbating ecosystem tension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ecological education clues were found in the Bible. Through cre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was identified as coexistence and coexistence. Through the principle of sabbath, it is possible to bring about the restoration of humans and nature, 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incarnation, the world was understood as the 'body' of God. Based on these clues, the direction of Christian ecological education was explored by suggesting a transition to an



ecological paradigm, restoration of creative spirituality, and cultivation of ecological imagination. In the crisis of climate change, it is hoped that the recovery of the earth will take place and that we will be able to stand again as a responsible being through the Christian ecological educational approach.

《 **Keywords** 》

Climate change, Creation and sabbath, Incarnation, Creation spirituality, Ecological imagination, Christian ecological education

- 투고접수일 : 2021년 8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9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9월 29일